



‘청춘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세월은 주름을
늘려도 열정을 시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을 가꾸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갈채를 보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 Vol. 13

HF SPECIAL

한복연구가 박솔녀의 액티브한 의·식·주

BEAUTIFUL LIFE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우리의 여름을 책임질 新 Paradise

WISE SENIOR

‘자산관리 3.0시대’에는 통합적 자산관리를

HF TODAY

이것저것 비교해 봐도 주택연금이 답이다



뜨거운 열정



〈주택연금〉여름호가 전하는
코 끝을 간질이는 ‘여름의 향기’.
햇살 아래 그늘이 되어주는 집은
삶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퍼지는 공간입니다.

C O N T E N T S



삶의 향기가 퍼지는 여름

04 Opening Column | 도전으로 꽃피는 여성 황혼

HF SPECIAL

06 주택연금이 만난 '꿈꾸는 시니어' | 한복연구가 박솔녀

10 테마 이야기 | 참여로 노후 가꾸는 여성 시니어들

12 HF 초점 | 2015년 더욱 부각되는 주택연금

BEAUTIFUL LIFE

14 또 다른 여정 |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18 문화를 읽다 | 빛바랜 시간, 빛 발하는 황혼의 로맨스

20 건강, 이것만 챙겨도 | 당신의 갱년기가 말하고 싶은 것

22 세계는 100세 시대 | 사회적 연대로 고령화 해법 찾다

WISE SENIOR

24 시니어 트렌드 | 도그워커(Walker)로 해피워커(Worker) 되기

26 알수록 든든 | 시니어 교통 혜택

28 파이낸셜 TIP | '자산관리 3.0시대'에는 통합적 자산관리를

HF TODAY

30 통계로 보는 HF | 이것저것 비교해 봐도 주택연금이 답이다

32 HF 소식 | 오늘의 주택금융공사

33 활력통신 | 시니어 이모저모

34 찾아가는 독자평가회 | 실버모델 윤은식 씨

발행일 2015. 6. 1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발행인 김재천 **편집인** 류기운 **기획** 손진국 **윤자은**

에디터 최명신 **심재훈** **제민주** **윤망울** **사진** 김재경 **디자인** 이영환 **이은진** **김아람** **우선정** **김다영**
인쇄·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공기업입니다.
주택연금 소식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연금-주택연금 홍보관'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전으로 꽃피는 여성 황혼

글_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76세에 캔버스 앞에 앉은 할머니가 있다. 농부의 아내로 슬하에 10남매를 둔 그녀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치였다. 하지만 자녀 다섯을 먼저 보내고 남편과 사별한 뒤 붓을 들었다. 사랑하는 이들의 부재를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채웠고, 101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 바로 미국 국민화가 반열에 오른 ‘그랜드마 모시스(Grandma Moses)’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꿈을 접은 70대 나이, 그녀는 새로운 도전으로 삶을 디자인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에 모지스의 삶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5.1세로 남성의 78.1세보다 길다. 때문에 인구분포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의 노후는 관계단절과 소외로 남성보다 활력을 잃기 더욱 쉬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아 존중, 새로운 관계 맺기 ‘엄마’와 ‘아내’의 무게감에서 벗어난 여성 시니어들의 변화를 응원한다”

여성 시니어에게 가족 간 유대 약화와 역할 변화는 ‘빈둥지증후군’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자녀가 독립한 후 여성이 느끼는 슬픔을 뜻하는 빈둥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은 자녀관계 뿐 아니라 퇴직, 사별, 폐경 같은 삶의 중요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 초조를 넘어 우울증 같은 병리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빈둥지증후군’ 같은 노년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아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라고 조언한다. ‘엄마’와 ‘아내’라는 무게감에 자신을 희생해 온 여성이 역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중년 이후야말로 자아실현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성에게 노후는 외롭고 쓸쓸한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오롯이 충실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미 많은 여성 시니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바리스타, 파티시에 등 전문적인 직종 뿐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가드너 등 공익활동으로 새롭고 의미있는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일은 무엇일까. 현재에 대한 ‘진단’이 첫 번째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일은 무엇일까. 현재에 대한 ‘진단’이 첫 번째다. 진단은 ‘행복한 노후’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다. ‘일’과 함께 노후를 보다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인 만큼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득과 자산, 가족 등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 활동이라는 4가지 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나머지 3가지 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일로 인한 소득창출의 한계지점에서는 주택연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기진단을 끝내면 긴 호흡으로 남은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 먼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짬을 내서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택에 따라 삶은 아름다워질 수도, 쓸쓸해질 수도 있다. 바로 지금, 그 선택을 할 시간이다. 여성 시니어의 도전은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엄마와 아내로 가족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녀들의 도전은 더 아름답다. 당신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예쁜 것, 행복한 것, 그래서 사는 것

글_ 제민주



‘한복연구가’, 박솔녀 디자이너에게 붙는 수식어다. 그녀에게는 이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 그저 한복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는 이가 더 돋보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한복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옷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한복과 동행해온 그녀의 31년 외길 인생. 그 속에 묻어난 액티브한 삶의 열정을 들어봤다.



01 배우 김희선과 함께

02 03 입는 이를 생각하며 옷을 짓는 순간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한다.



02



03

“

열정이
있어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사람

박
술
녀

”

몸에 감기는 비단의 맛, 그 의(衣)에 빠지다

한복연구가 박술녀 디자이너의 한복은 국내 연예인은 물론, 방한하는 해외스타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녀가 함께 했고, 그렇게 그녀에게는 ‘한복대통령’, ‘한복전도사’ 등의 애칭이 따라 다닌다. MBC 예능 <무한도전>, 드라마 <왔다! 장보리>,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한복을 협찬하며 박술녀 디자이너는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한복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두 여인이 존재한다. 그건 바로 어머니와 스승 이리자 선생. 박술녀 디자이너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바느질과 다림질 등 옷감을 손질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던 소녀였다.

“행상에서 생선 장사를 할 땐 편한 복장으로 계시다가도 격식을 차려야 할 상황에는 집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나가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반듯한 모습에 한복이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복이 이제는 제 인생 전부가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한복 역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여자로 태어나 가장 예쁜 걸 만드는 사람이 되렴’. 박술녀 디자이너는 어머니의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좋아하는 일이자, 예쁜 옷인 ‘한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시작한다.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서울로 상경한 뒤에는 26살의 나이로 한복 디자이너 1세대인 이리자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또래 문하생에 비해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했죠. 그런 환경이 오히려 고군분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최근 한 건설회사의 광고에 ‘밥을 짓고, 옷을 짓고, 집을 짓고. 짓는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란 인상적인 카피가 눈길을 끌었다. 그녀에게 이 글귀를 들려주며 물었다. 그토록 정성을 요하는 옷 짓기, 그녀가 한복을 만들 때 가장 중심에 두는 가치는 무엇이냐고. “옷을 입는 사람이 돋보여야 해요. 몸에 감기듯 꼭 맞는 옷을 만들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박음선이 울지 않도록 촘촘하게 바느질하고, 다림질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한복은 입는 이를 생각하며 정성스레 짓고, 또 정성스레 입어야 하는 옷이니까요.”

‘석새베에 열새 바느질’이란 말처럼 그녀는 멋진 솜씨와 그에 상응하는 정성으로 최고의 한복을 만드는 장인의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01



01

먹고 사는 문제(食), 철저한 자기관리가 빚어낸 삶의 리듬

일상이 한복이고 한복이 일상이 된 박솔녀 디자이너의 삶은 오직 '한복'으로만 점철된 규칙적인 일과의 연속이었다. 다른 곳에 눈길 줄 틈 없이 바쁜 삶 속에서 갑작스레 큰 병을 얻기도 했지만 오히려 한복은 물론, 건강의 소중함까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몇 년 전 갑상선암을 선고받고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 많은 비단들 다 어찌나’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일을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겠더라고요. 그 후론 매일 운동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거죠. 그래도 그거 아세요?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건강이 약해진 시기를 전화위복 삼아 다시 일에 대한 집념을 이어가는 그녀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 끼 식사

는 꼭 거르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워 규칙적인 자기 관리로 삶의 리듬을 지키고 있다.

“잘 챙겨 먹어요.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시골밥상, 전형적인 한국 밥상을 좋아해요. 특히 ‘강된장’요. 이것저것 넣고 질퍽하게 만들어 밥과 비벼 먹던 추억이 소중해서 저는 이 음식을 사랑해요. 제일 잘 만드는 메뉴기도 하고요.”

곱디고운 옷감을 다루는 모습에 우아한 직업이라 여기기 십상이지만, 그 뒷면에는 백조의 부단한 발짓처럼 치열한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운전기사나 비서 한 명 없이 모든 스케줄을 스스로 감당해내며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원천인 셈이다.

“나이 들었다고 한 걸음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땀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

- 01 앤디워홀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는 극찬을 받는 사진작가 데이비드 라사펠
- 02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 03 박솔녀 한복사랑 나눔 패션쇼를 빛내준 배우 박정수, 가수 주얼리
- 04 개그맨 박영수
- 05 피아니스트 이루마 부부



02



03



04



05

‘내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마인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지은 위로의 장소, 집(住)

그녀의 집은 청담동에 위치한 ‘박솔녀한복’ 사옥 맞은편이다. 바쁜 일과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오히려 더 애뜻하다는 장소, 잠깐을 머물러도 집은 집이라고 말하는 박솔녀 디자이너는 하루를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심적 여유가 집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집에 오면 긴장이 확 풀려요.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있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내 집은 아주 중요한 위로의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집은 세 들어 사는 거예요.(웃음) 한복 지을 비단을 사느라 정작 집에 대한 욕심을 내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의 소유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된 일상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걸요.”

그런 그녀가 몇 년 전 경기도 퇴촌에 전원주택을 구입했다. 비싼 땅, 편리한 교통, 으리으리한 집이 아닌 한적한 녹음 사이에 한국의 멋진 가득 담아 만든 주택이었다. “주말에는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주변 지인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여기서 꽃이며 풀에 물주고 밥 지어 먹고, 그럼 하루가 금방 끝나요. 요즘은 워낙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잖아요. 그런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곳에 발길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성공보다 소중한 건 미래의 내가 누릴 행복한 삶이에요.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기죠.”

인터뷰를 끝내면 퇴촌으로 넘어가 지인에게 전원주택 소개를 해주기로 했으며 연신 설레는 미소를 보이는 박솔녀 디자이너.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우는 그녀는 한복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 또한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인생 후반전, 새롭게 도전하는 여성 시니어

글_ 심재훈 사진제공_ 화성시청



올해 예순여섯 이서분 어르신은 오늘도 말끔한 유니폼을 갖춰 입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선다. 아담한 테이크아웃 부스지만 여느 직장 못지 않은 자부심으로 일한다. 한 번씩 손님이 '커피 맛 좋다'고 칭찬할 때면 자신감도 더해진다.

‘커피 내리는 황혼’,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지만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시니어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손자 돌보기, 식품가공, 봉제 등 단순작업이 아니라 ‘바리스타’가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이다.

각광받는 멋쟁이 직업 ‘시니어 바리스타’

‘시니어 바리스타’는 노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 바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0년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국내 최초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한



이래 이젠 전국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교육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대개 6~8주 정도 교육을 진행하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구직등록을 해야함에도, 25명 정원에 8~90명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니어 바리스타’가 각광 받으면서 각 지자체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지자체가 경기도 화성시다. 화성시의 ‘노노카페’는 지난 2009년 남부 노인복지관에 1호점을 개점했는데, 현재는 20개로 점포가 늘어났고 140여 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활동하고 있다. ‘노노카페’의 성공사례는 6월 중 프랑스 문화 예술채널 ARTE를 통해 유럽 전역에 소개될 예정이다. 화성시 복지국 서예순 노인정책팀장은 “시니어에게 바리스타는 전문자격을 갖춰야 하는 고급직종인만큼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래된 ‘손맛’으로 젊은 입맛을 사로잡다

여성 시니어 특유의 손맛과 정성을 살린 분식점이나 밥집도 성공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 중구 ‘마실김밥’, 광주 동구 ‘할매손맛팔죽’, 부산 서구 ‘할매’s 구멍가게’ 등 여성 어르신이 활동하는 다양한 맛집들이 성업 중이다. 특히 ‘할매손맛팔죽’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광주시 동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3년 문을 연 이곳은 65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3개조로 돌아가며 오래된 손맛을 살린 각종 음식들을 제공한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대학생,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여성시니어 자신감 회복하는 ‘사회참여’

‘시니어카페’, ‘밥집’ 등은 여성 시니어의 장점인 손맛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님들과의 만남을 통

해 노후생활에서 잃기 쉬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남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의 실버북카페 ‘삼가연정’에서 일하는 이서분 어르신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어요. 그래도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에 손님들이 같이 웃고, 인사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교육, 돌봄 등 여성 특유의 전문경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강남시니어클럽이 2010년부터 시행해온 ‘애프터스쿨매니저’도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애프터스쿨매니저’는 은퇴 교직자나 육아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각 가정에 파견되어 아동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는 오랜 교직 및 육아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아이는 기본적인 학습능력 뿐 아니라 풍부한 인성도 기를 수 있다.

일을 통해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여성시니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카페, 밥집, 방과 후 교육, 미용실, 방앗간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니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가운데 운영난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은퇴 후, 특히 여성의 경우 빈둥지증후군(중·노년 주부가 남편 퇴직 및 자녀출가 후 자기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 등을 겪을 때 새롭게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그 의미가 크다. 방지되기 십상인 잠재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멋지게 재도전하는 여성 시니어들, 그들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한다!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 드립니다

정리_ 주택연금부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홀로 고령가구는 2007년 15만 8,42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 25만 3,302명으로 늘었고, 올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 주 24%는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가운데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는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5년 주택연금의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봤습니다.



2015년, 왜 주택연금인가?

- 100세 시대, 노후생활 불안정 |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81%가 부동산에 묶여있어 현금 확보가 어려우며 주택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부부 모두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만의 차별성

- 배우자를 배려한 보장성 | 유족연금으로 40~70%만 지급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100% 보장합니다.
- 가입자에게 유리한 유연한 운영 |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초과액이 청구되지 않지만 적게 받은 경우, 정산 후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결혼, 병원비 마련 등 목돈 필요 시 대출한도 50% 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Q 세금도 줄여주는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감면, 소득 공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면제 (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 (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설정금액의 1%)
이용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

* 주택연금 이용주택 5억 원 이하 재산세 25% 감면 (5억 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 감면)

- 고령인 가입자를 위해 공사가 광역시도와 사전에 협의 및 조치하여 가입자가 재산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Q 국민경제에도 도움되는 '주택연금'

- **어르신 소득증가로 내수 촉진** | 주택연금을 40만 명 이용하면 4.8조 원, 100만 명 가입하면 12조 원이 해마다 새로운 소득으로 발생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주택매물 분산 통한 주택·금융시장 안정화** | 가입자 사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기 때문에 노후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한꺼번에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택·금융시장의 붕괴를 방지합니다.



Q 어르신들이 꼽는 '주택연금, 이래서 참 좋다!'

매달 꾸준한 연금수령 **96.0**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73.2**

배우자 사망 시 보장 지속 **40.2**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신뢰성 **22.7**

집값 등락 영향 받지 않는 연금수령 **22.0**

주택처분 후 잔여분 자녀 환급 **13.3**

필요시 연금 일부 목돈 수령 **11.2**

추가납입 없이
집값 초과분 수령 가능 **10.7**

기타 **1.9**



Q 이런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 2015년 4월까지 총 24,661명이 가입하였고, 올해 들어 가입자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 _ 72세(70대 48.6%, 60대 34.8%)

결 혼 _ 60.4%(부부) > 32.7%(독신여성) > 6.9%(독신남성)

주택가격 _ 평균 2억 7천 9백만 원(수도권 3억 1천 9백만 원, 지방 1억 6천 4백만 원)

월지급금 _ 평균 98만 5천 원(수도권 110만 5천 원, 지방 64만 원)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우리의 여름을 책임질 新 Paradise

글_ 제민주

베트남 여행하면 수도 하노이나 호치민 특별시를 쉽게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익숙한 이름뿐만 아니라 낯설지만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안겨주는 새로운 관광지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 대표주자는 바로 다낭과 호이안.

베트남 속 '하와이'라 불리는 '다낭'과 17세기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호이안'은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알찬 여행지이자 그래서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여유로운 장소로 손꼽힌다.



Da Nang



다낭, '동양의 나폴리'로의 초대

베트남은 남중국해 옆으로 가늘고 긴 모양의 영토를 가졌다. 북부는 수도 하노이, 남부는 특별시로 지정된 호치민이 베트남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부지역의 다낭을 비롯한 후에, 호이안 등이 인기 관광지로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히 다낭은 가장 급부상한 관광지. 다낭국제공항 직항노선, 호이안과 연계한 여행상품 등이 가족단위 여행객과 효도관광을 떠나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베트남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항구도시 다낭은 이제 그 아름다운 해변을 관광객을 위해 양보한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다낭 미케 해변을 비롯해 논느억, 박미안 등 한없이 뻗은 모래사장 주변으로는 하얏트 리젠시, 빈펄 리조트 등 세계적인 글로벌 호텔체인이 들어섰다. 또한 프로 골퍼 그렉 노먼이 설계한 베트남 최고의 골프장 다낭C.C도 이곳에 있다.

이렇듯 휴식과 낭만을 즐기기에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는 다낭은 과거 해상 실크로드로 떨친 명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베트남 참파왕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미손 유적지는 웅장한 압도감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다른 힌두교 유적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베트남전쟁 당시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는 상당하다. 미손 유적지는 지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베트남 화폐 단위로 십만 동(한화 약 5,000원)을 내면 이곳을 둘러볼 수 있다. '동양의 나폴리', '베트남의 보석' 등 다채로운 수식어가 다낭을 표현하는데, 그 수식이 하나도 무색하지 않다.

- 01 2003년 지어진 다낭 Thuan Phuoc Bridge.
- 02 이른 아침 낚시 중인 베트남 어민
- 03 배를 통해 왕래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켓



01



02



03



01



02

Hoi An

호이안, 시간을 거스르는 아날로그 여행지

다낭을 여행한다면 잊지 않고 함께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 다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호이안’이다. 투본강을 기점으로 한쪽은 구시가지, 또 다른 한쪽은 신시가지로 형성하고 있다. 그 중 구시가지는 마치 17세기에서 멈춰버린 듯한 고풍스러운 느낌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장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 듯,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느려지고, 차분해진다. 그래서 더 여유롭다.

호이안은 작은 도시지만 해상무역의 중개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흔적을 곳곳에 건축물로 남겼다. 대표적인 장소는 내원교와 복건회관이다. 일본무역상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찰과 함께 세워졌다는 일명 ‘일본다리’ 내원교는 호이안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사진을 찍고 간다는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적인 색채가 강한 복건회관 역시 빠질 수 없는 관광코스다.

이러한 건축물의 가치는 호이안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큰 몫을 했다. 구시가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행자는 세계문화유산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호이안 구시가지에는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며,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씨클로(Cyclo:베트남식 자전거)만 허용된다. 보다 천천히 문화유산을 누려 보라는 의미다. 마치 ‘아날로그적 여행자’ 감성을 회복하도록 호이안이 주는 선물처럼, 호이안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잠들어 있던 세상의 모든

01 베트남식 자전거 씨클로

02 내원교

03 수공예 전등을 파는 호이안의 상점들



03



빛이 밤을 맞이하는 순간 깨어나는 느낌이다. 손재주가 뛰어난 베트남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이안의 수공예 전통은 저녁부터 형형색색의 빛을 드러내며 시가지 전체를 알록달록 물들인다. 보름이 되면 투본강 위로 연등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 기간을 맞춰 호이안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과거의 시간과 현재를 공유하는 장소이자 17세기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호이안. 베트남에서 누리는 세계여행과 과거여행의 묘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는 달뜨기 충분하다.

베트남 중부여행, 농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check1. 이 장소, 이 메뉴!



• In DA NANG

뜨는 관광지답게 베트남 전통음식에 퓨전의 향을 가미해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의 입맛을 공략한 메뉴들이 많다. 얇은 전병에 돼지고기, 해산물, 숙주를 넣고 철판에 구운 반세오(Banh xeo), 모닝글로리라는 야채를 마늘과 함께 볶은 라무옹(Rau Muong Xao Toi), 베트남 서민들이 오랫동안 고수한 전통음식으로, 갈비 덮밥의 일종인 껌땀과 껌쌈(Com Tam Suon) 등은 다낭을 방문했을 때 꼭 먹어야 할 메뉴.

[마담란] 박당(Bach Dang) 4 거리

[람비엔] 트랜 반 두(Tran Van du) 88 거리



• In HOI AN

투명해 가까운 쌀반죽피에 새우살을 넣고 맛있게 찌낸 베트남식 만두, '화이트로즈(White Rose)', 만두모양 윗부분이 마치 장미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얇은 피 덕분에 입안에 넣는 즉시 사르르 녹아드는 느낌이 꽤 매력적이다. '까오로우(Cao Lau)'는 국물없는 면이 특징인 음식으로 쫄깃한 면과 야채, 고기와 튀김을 베트남 특유의 소스와 버무려 먹는다. [미스리] 응웬 후(Nguyen hue) 22 거리 [모닝글로리] 응웬 타이훅(Nguyen Thai Hock) 106 거리

check2. 필수 관광지



• In DA NANG

마블마운틴

베트남 현지인들이 신성시한다는 다낭의 명소, 우주를 구성한다는 나무, 금속, 흙, 물, 불을 모티브로 한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뤄져 있어 '오행산'이라고도 불린다.

석회암 동굴로 잘 알려진 가장 큰 봉우리 '투이쑤'는 매일 정오에 동굴 천장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로 장관을 이룬다.



• In HOI AN

투본강 투어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호이안이 또 다른 얼굴을 내미는 시간이다. 형형색색의 새 옷을 갈아입은 호이안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투본강. 나룻배에서 크루즈까지 즐길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다양하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 투본강 위에서 펼쳐지는 호이안의 색다른 풍경을 관찰해보자.



빛바랜 시간, 빛 발하는 황혼의 로맨스

글_윤망을

**강렬한 카우보이에서 로맨틱한 사진작가까지,
‘클린트 이스트우드’**

올해 86세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의 거장 감독이자 배우이다.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등 강렬한 서부영화로 장식됐던 그의 필모그래피는 총잡이에 대한 환상을 깨트린 <용서받지 못한 자>로 절정을 맞았다. <퍼펙트 월드>와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는 각각 탈옥수와 인질, 트레이너와 복서라는 새로운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족애를 깊은 시각으로 녹여내 수상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인생철학을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한 것이다.

거칠고 단단한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그는 65세 무렵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통해 메릴 스트립과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실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우주 속 단 한 번 찾아오는 진실한 감정에 흔들리는 나홀만의 사랑 이야기’다.

**운명적인 단 한 번의 감정에 대하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남편과 자식들에 헌신하며 살아온 여자와, 가정이라

황혼을 단지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로 단정 지을 순 없다. 빛바랜 사진처럼 추억할 수 있는 기억이 많아 더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은 남은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색된 황혼, 그 절정에서 빛나는 사랑을 보여준다.

는 뿌리 없이 모험을 즐기며 자유로이 살아온 남자가 우연한 기회에 사랑에 빠진다. 잡지에 실을 로즈만과 할리웰 다리의 사진을 찍기 위해 매디슨 카운티 마을에 도착한 사진작가 로버트(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남편과 아이들이 박람회 참가하러 떠난 후 홀로 집에 남겨진 프란체스카(메릴 스트립). 두 사람은 끌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윤리의식과 주변시선 때문에 애써 서로를 외면하고 만다.

‘당신을 따라간다 해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슬플 것이고, 여기에 남는다 해도 당신을 평생 그리워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며 이별을 고하는 여자와 묵묵히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남자는 책임질 것이 많아진 나이에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그렇게 놓아버린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차 문고리를 움켜쥐며 그에게로 갈까 말까, 수없이 망설이다 결국 떠나보내고 마는 클라이맥스 장면에서는 현실에 붙잡혀 그 ‘단 한 번의 감정’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노·중년 관객이라





“

할 이야기가 있소, 한 가지만.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요,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소.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살아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

면 누구라도 아릿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나홀의 사랑은 그녀의 남은 생을 오롯이
채우는 빛이었으며, 무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평생을 가
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진정 사랑했던 사람의 곁
에 묻히길 원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프란체
스카의 보수적이고 소박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감정
에 솔직해지기를 주저하고 마음속으로 오직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자위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자못 심심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나홀간의 사랑은 결국 도둑잠에서 깨어난다. 사랑
의 기억은 세월에 조금씩 바래지고 두 남녀의 농익
은 얼굴에는 주름만 아로새겨졌다. 하지만 중년 혹
은 노년의 사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그저 ‘용기의
부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비록 결실을 거
두지는 못했더라도 그저 그런 감정들을 진실하게 나
누었다는 것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다양한 빛으
로 채색될 수 있다.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그 꿈들이 있었음에 감사한다’
고 말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서 빛바랜 시간 속
에 접어두었던 찬란하게 빛나던 열정을 다시금 되새
겨 보는 것은 어떨까.

함께 보면
좋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2014)

89세 소녀감성 할머니와 98세 로맨티스트 할아버
지는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금슬 좋은 노부부다. 하지만 비
가 내리는 마당, 점점 더 찾아지는 할아버지의 기
침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
별을 준비한다.



장수상회 (2015)

장수상회에서 일하는 융통성 없고 고집 센 할아
버지 성철(박근형)과 상냥하고 친절함 꽃집 할머니
금님(윤여정)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조심스레
사랑을 시작한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
은 그들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 사람들
도 온화한 시선으로 그들의 서툰 첫사랑을 응원한
다. 그러던 어느 날 성철은 자신만 몰랐던 금님의
비밀을 듣게 되는데...

당신의 갱년기가 말하고 싶은 것

글_ 이세일 다니엘종합병원 의료원장(의학박사, 비뇨기과 전문의)

갱년기란 40~60세 사이의 남성, 여성에게서 성호르몬의 감퇴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증상들을 말한다. 한 여름의 뽀뽀한 햇살이 곡식과 과일을 영글게 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듯이 우리 인간도 뜨거운 청춘의 시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원숙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젊을 때와 같은 열정과 패기는 아무래도 약화되고 폐경이라든지 남성갱년기 증세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맞게 된다.



갱년기 증상, 건강을 위한 대비책 마련 위한 신호로

남성의 갱년기와 여성의 갱년기는 두 증후군이 모두 성호르몬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어 그 증세가 대동소이하다. 정신적·심리적으로 건망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며, 불안이나 우울, 자신감 결여 증세도 생길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피부 노화현상과 식욕저하, 불면증이나 관절 통증 등이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성적 흥미가 감소되고 발기력이 약화되거나 성적쾌감이 감소하게 된다. 심혈관계의 증세로서 가슴을 지나치게 흘리거나 안면홍조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은 남성호르몬인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며,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점차 감퇴되어 30대의 건강한 남성에게 비해 70

대에는 1/2, 80대가 되면 1/3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비뇨기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동년배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증세를 느낄 수도 있다.

남성 호르몬은 발기와 사정 등의 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도 피부의 탄력이나 머리카락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근육의 양을 많게 하며 간과 신장의 기능이나 뼈의 조절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 갱년기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서 다른 비뇨기과적 질환의 전구증상은 아닌지 기본적인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혈액 중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직접 확인하거나 문진을 통하여 호르몬 보충 요법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

여성갱년기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안면홍조, 우울증, 불면이나 초조함 등의 증세가 남성에 비해 더 심할 수 있다. 또 남성의 경우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는데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여성에게는 유방암 등의 발현위험이 있어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성호르몬은 식물을 통한 대체 투여요법들이 권장되고 있는데, 주로 권장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콩이다. 콩은 ‘제니스탄’이라는 이소플라보노이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호르몬 의존성 종양, 유방암, 자궁내막염, 대장암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소플라보노이드는 지방산의 과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노화의 과정은 불꽃이 타는 것과 같은 산화반응이 우리 체내에서 표현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타민 C, 비타민E, 셀레늄, 망간, 아연, 구리 등은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들의 필수 구성성분인데, 이러한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프리라디칼의 생산을 억제할 수 있어 유독성의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가 빨리 타 버리는 작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균형있는 웰빙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창한 ‘건강’의 정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웰빙(WELL-BEING)의 상태’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활습관, 나이가 마음가짐까지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육체’를 산화라는 형태로 공격하는 프리라디칼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좀먹는 모든 ‘관계성의 악화’나 ‘사회적 고립’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 등은 갱년기에 겪는 여러 건강상 문제들을 잘 극복하게 해준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지향하는 자세로 올곧게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전반적인 활력과 매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잘 익은 과일처럼 원숙한 아름다움을 지닌 노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갱년기에 좋은 음식



〈남성〉



굴 : 아연, 인 등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굴은 활력 증진은 물론, 남성의 성적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토마토 : 항산화성분인 라이코펜을 함유한 토마토는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며,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늘 :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좋다.

〈여성〉



콩 :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이소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갱년기 특유의 흥분 상태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참 :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량이 대두의 30배, 석류의 628배다.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폐경을 늦출 수 있다.



크랜베리 : 갱년기 여성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인 방광염 예방에 매우 좋다.

사회적 연대로 고령화 해법 찾다

글_ 심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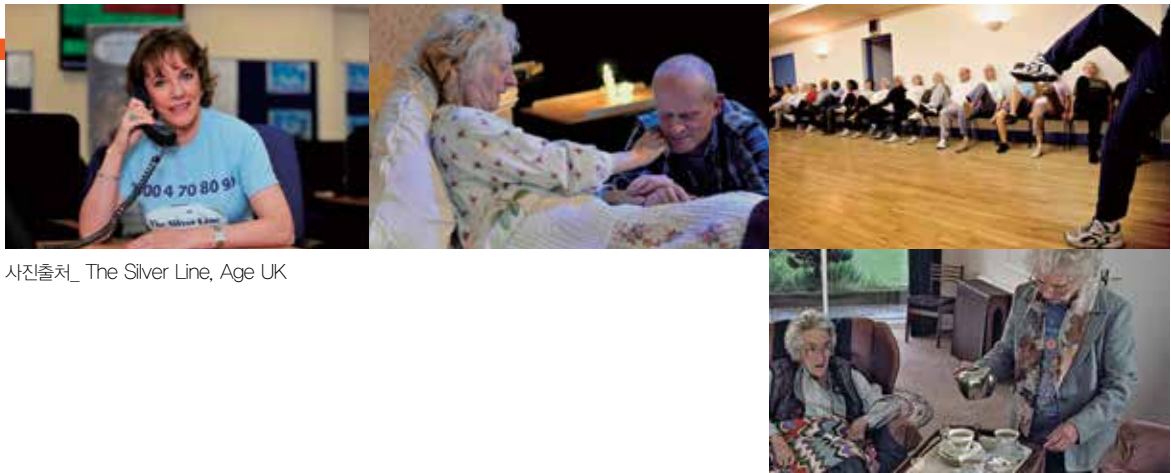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을 탄생시킨 ‘영국’.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고령인구가 급증한데 비해 긴축재정이 공공서비스의 발목을 잡으면서 노후생활이 점점 팍팍해졌다. 무엇보다 가족, 이웃과의 유대가 느슨해진 탓에 겪는 ‘외로움’이 큰 문제다. 하지만 최근 ‘단절’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모색이 시작되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영국의 ‘아름다운 동행’을 살펴본다.

영국 시니어 ‘공공의 적’... ‘관계단절’과 ‘외로움’

영국의 시니어 도로서 밀스는 “당신은 이것을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체감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죽음 상태나 다름 없다.”고 말한다. 영국은 다른 서구국가에 비해 전통적으로 가족, 지역 등 공동체의 결속이 강했다. 그런만큼 노후에 찾아오는 단절과 외로움은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온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최근 보도에서도 이런 현실은 확인된다.

- ▶ 에이지UK(Age UK)에 따르면 75세 이상 홀로 사는 영국 시니어의 절반이 넘는 45만 명이 크리스마스를 가족이나 친구 없이 쓸쓸히 보낸다.
- ▶ ‘외로움 추방(End Loneliness)’ 캠페인은 영국 고령층 가운데 5백만 명이 텔레비전을 주된 친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영국 지역보건 의사 가운데 3분의 1은 노인환자의 10% 이상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받길 원한다고 믿고 있다.

이렇듯 영국 시니어들이 겪는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면서 영국사회는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진출처_ The Silver Line, Age UK

절망에서 손 내민 친구, 실버라인(The Silver Line)

우선 주목받은 움직임은 말벗이 되는 '실버라인(Silver Line)'이다. 실버라인은 75세의 유명 방송인 에스터 란첸(Esther Rantzen) 주도로 어르신에게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은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힘든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대를 당할 경우 신고할 수도 있다.

2012년 시범운영 된 실버라인은 2013년 정식출범했고, 설립 1년 만에 30만 통의 상담전화를 했다. 시니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외로움과 고립감이었다. 실버라인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이야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는 가정과 공공 돌봄서비스로부터 학대 또는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라인은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친구, 정보, 조언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참가자들이 자원봉사자와 팀을 이뤄 매주 연락하는 '친구 맺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독한 노년을 보내던 영국 시니어들은 실버라인 이용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실버라인을 이용하는 도로서는 "친구와 대화하듯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해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입니다.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라고 밝힌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78세의 엘라 브리튼도 "자녀가 있지만 너무 바쁩니다. 자녀 대신 실버라인을 이용하는데

너무 만족합니다."라고 말한다.

CQC의 노인사회간병 선임감독관인 안드레아 서트클리프는 "실버라인처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미덕을 배우고 타인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라고 강조한다.

'서로 돕는' 영국 시니어와 지역공동체

좀 더 나은 여건의 시니어들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돕는 상부상조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고령자단체인 에이지UK(Age UK)에 따르면 주당 50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는 87,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28%나 증가했다. 또한 벨파스트시 등 지역공동체에서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와 지역 자원봉사가 결합된 각종 서비스가 시범운영 중이다. 기존 정부지원 돌봄서비스가 식사, 거동지원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 반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말벗, 산책 등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쉽고 따뜻한 돌봄'이 장점이다.

남을 배려하고 열린 교류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열쇠라고 말하는 영국.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낡은 인생지도를 붙들고 헤매는 이들에게, 그리고 세계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사회에 훌륭한 나침반이 돼 줄 듯 하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도그워커^{Walker}로 해피워커^{Worker}되기

글_ 제민주 자료제공_ 동물행동심리연구소 폴랑폴랑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 '도그워커'를 탄생시키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도그워커(Dog Walker)’. 다소 생소한 이름이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반려견의 산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강아지의 사회성이 정립되는 생후 8주부터의 기간은 평생 기억에 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다른 동물을 유독 무서워하거나, 물기, 심하게 짖기 등의 행위는 제때에 사회성을 정립하지 못해서인데, 이같은 문제들은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예방, 훈련할 수 있다.

장난감 같다는 뜻의 애완(愛玩)동물이 이제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의 반려(伴侶)동물로 불린다. 동물을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벗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주인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나아가 신종 직업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려견의 산책을 도와주는 도그워커. 시니어가 도전할 만한 유망직으로도 선정된 이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소개한다.





강아지가 먹이를 주는 사람보다 산책을 시켜주는 사람을 더 잘 따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니, 산책의 중요성은 이미 검증된 부분이다.

이 점 때문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도그워커라는 신종 직업이 뜨고 있다. 도그워커는 반려견을 찾아가 함께 산책하고, 놀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반려견의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활력 및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 직업인.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문화가 20년 이상 앞선 해외에서는 도그워커로 활동하는 이들이 이미 상당하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직업이야?’, ‘반려견과 산책하는데도 전문 지식이 필요해?’ 라고 묻는 이들도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도그워커의 등장은 오히려 반갑기만 하다.

플랑폴랑 시니어 도그워커, 일석이조의 효과

국내에서도 도그워커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동물행동심리연구소 플랑폴랑. 이곳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도그워커 아카데미와 동일한 과정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 플랑폴랑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해외에서도 프로페셔널 도그워커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다. 국제 인증을 보유한 곳은 플랑폴랑이 전국 유일하다.

도그워커가 되는 과정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다루는 일이기에 다소 엄격할 수밖에 없다. 동물행동심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거친 후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 후에도 일정 기간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 커리큘럼으로는 도그 워킹에 필요한 지식과 1인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노하우, 반려견의 응급처치&CPR 교육 등이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도그워커로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유효기간은 1년. 꾸준한 자기관리와 경험을 통한 연습으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격증은 취득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도그워커의 경우는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는 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되는 엄연한 직업입니다. 동물과의 교감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직업은 시니어들에게 아주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맞는 시간과 여건에 따라 스케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요.”

김윤정 플랑폴랑 대표는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신체운동량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천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해피워커를 꿈꾸다

플랑폴랑에서는 몇 년 전 시니어 도그워커를 배출했던 바 있다. 당시 도그워커 자격으로 반려동물의 산책을 책임졌던 시니어는 ‘교육을 받는 동안 스스로 가졌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분야의 전문가로 여성 시니어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강압적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동물을 제어하려는 모습은 곧 ‘동물학대’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여성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거든요. 여성의 섬세함과 모성애,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능력 등이 이 직업의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귀에 익은 타이틀의 직업이 사라져가는 시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함보다 자신의 강점과 관심분야에 부합하는 일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다양한 직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도그워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반려동물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나 ‘반려동물 위탁업’, ‘반려동물 생산유통업(브리더)’도 함께 각광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동물과 관련한 새로운 시니어트렌드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챙겨두면 혜택 가득 시니어 교통 혜택

글_ 최명신

사회활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이동성'이다. 이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자리나 여가 활동 등의 기회가 줄어들어 결국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 혜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통 혜택 누리자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지하철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을 탈 때 시니어들은 '어차피 요금이 무료인 만큼 승차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하철 운송약관은 무임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부정승차로 처리한다. 부정승차 시에는 이용구간 할인 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꼭 무임승차권을 발행받도록 하고, 전용 무료카드인 '시니어패스'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본 시니어카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 교통카드 형태로도 발급 가능하다. 이 외에도 KTX와 새마을호 등 기차이용 시 30% 할인, 대한항공 10% 할인,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 등 다양한 시니어 교통 혜택이 있다.

교통교육 이수하고 보험할인 혜택 받자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시니어 운전자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 소지자 비율은 2.6% 늘어났지만, 65세 이상의 경우 면허 소지자 비율은 14.4%로 대폭

상승했다. 시니어 운전자가 느는 만큼, 교통사고 비율도 2007년 4%에서 2011년 6.1%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특화된 안전운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해 실질적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는 것이 목적이다. 매월 한 회,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인지기각검사, 교통안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 보험료 5% 할인혜택이 있다.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계약은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또는 ‘개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 계약이다. 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거나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할 경우여야 한다. 다만 현재 가입 중인 보험회사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는지는 사전에 확인해 보자.

행복택시로 불편 없이 다니자

벽·오지 지역은 비좁은 도로사정 때문에 버스가 하루 두 세 차례 다니거나 아예 다니지 않아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행복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농촌형 특화 교통모델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불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형 승합차 등을 활용해 예약에 따라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승객 수요가 적은 지역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2인 이상이 모여야 하고, 월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소재지에서 진료를 받거나 외부업무를 보려는 시니어들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업무를 마치면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지로 다시 돌아간다. 500원에서 1300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다녀올 수 있어 큰 인기다. 하지만 모든 벽·오지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지역인지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요 지자체별 행복택시 운영 현황

구분		기본요금	대상지역	비고
경기	여주시	1,000원	지정 5개 마을 대상	읍면소재지 1000원, 여주 시내 1500원, 인접 버스정류장 100원
	양평군	1,200원	지정 5개 마을 대상	10km 이내 1200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
	화성시	500원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대상	버스 대신 택시를 매일 3회 왕복 운행
	안성시	1,100원	지정 40개 마을 대상	이용 1시간 전 전화 시 운행, 1인 1100원, 주3회 평일 7~21시, 왕복 2회
충북(7월 시행 예정)		1,300원	버스승강장 700m 이상 198곳 대상	충청북도에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도에서 지정
충남	서천군	100원	지정 23개 마을 대상	5km 면소재지 100원, 11km 군청소재지까지 1100원
경북	봉화군	1,200원	버스 운행하지 않는 지역 대상	-
	의성군	1,200원	버스승강장 1km 이상 마을 대상	-
	성주군	500원	지정 12개 마을 대상	-
경남	하동군	100원	버스승강장 1km 이상 마을 대상	-
	합천군	1,000원	버스승강장 1.5km 이상 마을 대상	해당마을~읍면소재지 운행, 가는편 12회, 오는편 12회 운행
	함양군	1,200원	버스승강장 1km 이상 마을 대상	-
전남	보성군	1,200원	지정 10개 마을 대상	시행 후 1개월간 907회(2003명 탑승)
전북	부안군	1,300원	버스 운행하지 않는 지역 대상	7km 이내 1300원, 1km초과 시 100원씩 추가

자산관리 3.0시대 통합적 자산관리를

글_ 류재광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득활동 시간보다 퇴직 이후의 소비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30세에 취직해 55세까지 일하고 8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할 때, 돈 버는 시간은 25년이지만 돈 쓰는 시간은 30년이나 된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소득의 반은 저축해야 노후빈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반을 저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된 소득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비지출을 하며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 자신의 노후자금 준비 등 여러 가지 재무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다.

자산관리와 재테크는 다르다

'자산관리'는 '재테크'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다. '재테크'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단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행태를 말한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 당연히 위험도 따른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단기 주식투자자로 원

금마저 손실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재테크는 단기적인 자산증식에 치우친 나머지 100세 시대에 필요한 '통합적인 재무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다. 반면, '자산관리'는 앞으로의 삶을 조망해보고 향후 예상되는 필요 자금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예상 소득을 영역별로 적절히 배분해서 재무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재무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소득을 각각의 항목에 어떻게 균형있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목돈 마련에서부터 노후자금 적립과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장상품 준비까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생활에만 집중하면 노후생활비 부족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노후준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현재의 삶이 팍팍해진다. 또한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중증 질병이나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어느 하나 빠지는 항목 없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맞게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나가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적 자산관리,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

하지만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금융상품이 고도화되면서 혼자서 자산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금융투자 상품의 자문뿐 아니라 노후자금 마련,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상품 상담, 상속 등의 컨설팅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는 그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제공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일반 대중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상품을 개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1.7(무), 미래에셋 퇴직플랜40(채권혼합), 교보생명 더 든든한 (무)교보VIP변액유니버설통합

종신보험 등이 있으니 참고 하도록 하자.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선택 시 주의할 점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점을 주의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첫째, 통합적 관점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통합적 혹은 종합적 자산관리'라는 간판만 있고, 실제로는 투자상품 컨설팅에 편중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본다. 또한 노후자금 준비나 금융자산 운용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는 상품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까지 고려한 균형있는 자산관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자산관리 보고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컨설팅 결과를 구두로만 설명하고, 고객이 읽으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보고서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대로 된 컨설팅 서비스가 아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종합 검진 결과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보고서가 있어야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음 컨설팅 시점까지의 변화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해본다. 어느 항목에 편중된 지식이 아니라 노후자금 준비, 보험상품 가입, 금융자산 운용, 상속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식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고금리를 배경으로 한 예·적금 전성기가 '자산관리 1.0 시대'라면, 지금은 단기 재테크가 유행하는 '자산관리 2.0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제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재무목표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자산관리 3.0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저것 비교해 봐도 주택연금이 답이다

정리_ 편집부

2007년 7월 출시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증가해 2015년 4월 기준으로 24,661명이 가입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통해 노후자금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거주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즉시연금 등보다 유리하고, 다른 해외 역모기지 제도와 비교해 봐도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달성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다.

고령층을 위한 공적 역모기지,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자
(2015. 4 기준)

24,661 명



가입자 평균연령

72 세



평균 주택가격

27,900 만 원



평균 월수령액

98.5 천 원

주택담보대출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주택연금

■ 부담감 해소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중
원리금 상환의무



주택연금

■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까지 보장



살던 집



생활비까지 보장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경제활동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구입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합하나,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됨. 따라서 고령층에게는 주택담보 대출보다 주택연금이 더 유리!

주택연금과 해외 사례 비교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유사한 해외제도로는 HECM(미국), RMP(홍콩)이 있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둔다면, HECM이나 RMP는 금융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HECM이나 RMP보다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자랑한다.
- 고객지출비용은 더 적은 반면, 매달 더 많은 월지급금을 드리고 있음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2015. 3. 9. 기준)

구분	한국 (주택연금)	미국 ¹⁾ (HECM)	홍콩 ²⁾ (RMP)
대출취급수수료	-	\$2,500 ~ \$6,000	-
감정평가비용	없음 ~ 1,066천 원	\$450 ~ \$575	금융기관 부담
대출부대비용	총 297 ~ 372천 원 - 근저당설정비(297천 원) - 인지세(0~75천 원)	총 1,172 ~ 2,662천 원	총 1,120 ~ 1,820천 원 ³⁾
관리수수료	-	\$4,800~\$5,600 (매월 \$30~35 지불)	HK\$0~1,000 (조건변경 시마다 납부)

1) 원/달러환율 = 1,100원, 2) 원/홍콩달러환율 140원, 3) 가입자 연령 70세, 주택가격 3억 원 적용

■ 매월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동부생명 '주택연금사랑 실버암보험' 출시

동부생명이 주택연금 가입 시 최대 16.5% 할인된 보험료로 암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사랑 실버암보험'을 출시했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만 61세 이상 80세 이하 주택연금 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로,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10%를 기본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고혈압·당뇨가 없을 경우 5%,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보험계약을 할 경우 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문의처 : 동부생명 콜센터(1588-3131)

주택금융공사가 사랑을 나눕니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협약 체결 및 사랑의 도서 기증



주택금융공사는 5월 15일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과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재단은 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사업비를 후원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돌봄으로 채용해 노약자, 저소득 산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동월 22일, 부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9곳에 약 840권의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기증은 부산 강서구 등에 소재한 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각 센터별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후원한 것이다.

공사는 2011년도부터 아동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를 기증해 왔다.

풍요로운 노후를 선물해 드립니다. 2015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출범



주택금융공사가 '2015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117명'을 선정하고 서울과 (4월 23일)과 부산(4월 28일)에서 각각 위촉식을 가졌다.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는 주택연금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중 수집한 외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공사 상품개선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어르신 위한 '행복콘서트' 진행

서울시가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 행복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5일 세종음악기행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10회 공연을 진행하는 행복콘서트는 2008년 도입 후 1만9천 명이 관람하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올해는 세종문화회관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한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65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연 1주일 전까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지역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및 구지회로 하면 된다.

공연 (세종M씨어터) '아리랑양상불 정기공연'(국악) 6. 26 ~ 27

'원형의 전설'(연극) 8. 31 ~ 9. 20

문의 · 신청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02-812-8075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 02-715-1871



10월부터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병·의원으로 확대

매년 가을,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 앞에서 긴 줄을 서던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6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0만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이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무료로 받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종전과 같이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www.mw.go.kr



CULTURE EVENT

주택연금에 읽은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음호에 반영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구독을 희망하시는 단체는 이메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mail : silver100@hf.go.kr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 중 선착순 18분을 선정하여 공연관람 기회를 선물합니다.
공연은 2014 창작국악극대상에서 연주상을 수상한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꿈·꾸·세(꿈꾸는 세종)'입니다.

※ 좌석은 지정석으로 1인 2매를 드리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정보

일시 :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 **예술감독** : 유경화(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장)

긍정적 순환의 과정, “주택연금 덕분입니다”

정리_ 제민주

35년 넘게 직장인과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살아온 윤은식 씨. 무역회사와 여행사 등 활동적인 영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성은 노년으로 접어든 그를 더욱 호방하고 친취적인 시니어로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공익을 위한 일에는 기꺼이 무상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멋쟁이 신사, 그와의 유쾌한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윤은식 고객

윤은식 씨는 지난 2월부터 주택연금과의 즐거운 동행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이제는 주택연금까지 받게 된 것.

“은퇴 후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마음의 여유가 더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안정과 여유를 주택연금으로부터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그는 은퇴를 앞둔 시기를 미국에서 보냈다. 지사장으로 근무한 6년 간의 미국 생활이 현재의 그를 만든 8할이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기부’에 대한 거였어요. 부자들은 돈으로 타인을 돕지만,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돕긴 어렵죠. 대신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타인을 돕더군요.” 이런 이유로 윤 씨는 공익을 위한 일에는 열 일 마다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공익광고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노인권익위 실버모델 등 광고 활동만 40여 회가 넘는다. 이 외에도 스포츠마사지, 숲 해설가, 노인상담사, 스마트폰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의 편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니어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젊은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금 먼저 익숙해진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윤은식 씨는 매일 4시간 가까이 운동에 시간을 쏟는다. 오직 나를 위한 건강관리라면 쉬엄쉬엄할 만도 하지만 그가 건강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족, 다음이 노인들의 소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명백한 이유가 있으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보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윤은식 씨, 그가 주택연금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시니어에게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헬스시설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 가입하면 ‘가입증명서’를 주던데, 이거 조금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건 어때요? ‘나 좋은 제도로 혜택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폼 나지 않아요?(웃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은퇴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제2기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 6.15~7.20 매주 월요일(14:00~16:00)

부산 6.18~7.23 매주 목요일(14:00~16:00)



- ▶ **참가대상** 은퇴준비에 관심있는 전 국민 100명 이내(서울 50명, 부산 50명)
선착순 원칙으로, 은퇴교육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 **장 소**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15층, 부산 남구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7층 강당
- ▶ **모집기간** 6.1(월) ~ 6.9(화)
-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수
방문접수 : 전국 주택금융공사 영업점 방문접수
- ▶ **특 전** 참가비 없음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료증 발급
- ▶ **문 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051-663-8473~6
- ▶ **교육일정**

회차	제목 및 내용	서울	부산
1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알아보기 / 건강한 삶 유지하기	6.15	6.18
2	금융자산의 효율적 관리방법 / 인생이모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6.22	6.25
3	노후자산 어떻게 관리할까 / 나도 이제 스마트폰 전문가	6.29	7.2
4	신용은 높이고, 대출은 안전하게! / 가족과 소통하기	7.6	7.9
5	내게 맞는 금융상품 진단 / 응급처치교육	7.13	7.16
6	금융위험 관리하기 / 내가 찾은 은퇴재무설계 및 수료식	7.20	7.23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